

2019년 2분기 공약사업 언론 보도 자료

▶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사업 /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도일보, 충청신문('19.4.11.)

中 都 日 報

2019-04-11 14:10

대전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용역 중간보고회

[임효인 기자]

1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행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용역 중간결과·용역세부내역 설명



대전 중구는 1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행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월 용역 착수 후 용역수행 중간결과와 세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현황·여건분석 ▲공원구역 경계설정 ▲기본계획안 ▲시설물 배치계획 등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정원 ▲산책로와 탐방로 등 시설물 배치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대전시와 중앙부처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 만큼 이날 보고회에는 시 관련 부서 직원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도 참석했다.

사정동 **뿌리공원** 인근 행정근린공원 등 15만 5833㎡ 부지에 제2**뿌리공원** 조성을 골자로 한 **효문화**뿌리마을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이번 7월 용역이 끝나 사업 설계가 완성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교통·환경·재해·문화재 영향평가,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의 절차를 연말까지 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용역과 이후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관광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중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忠 淸 新 聞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005면 지역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순조'

중구, 숙박·체험시설 확충 위해 정원·산책로 등 배치 검토

행정근린공원 용역 중간보고회

대전 중구가 11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행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용역 착수 후 용역수행 중간결과와 세부내역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현황·여건분석 ▲공원구역 경계설정 ▲기본계획안 ▲시설물 배치계획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대전시와 중앙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한 대형 사업인 만큼,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시 관련부서 직원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도 참석해 컨설팅에 참여했다.

보고회에선 기존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부족한 숙박과 체험시설 확충을 위해 ▲정원 ▲산책로와 탐방로 등의 시설물 배치가 심도 있게 검토됐다.

효문화뿌리마을이 완공되면 뿌리공원, 죽보박물관, 효문화마을관리원 등과 연계해 전국 유일의 효 테마파크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초명되고 있는 단체 산책로 생가와 오월드 등 인근 명소와 연계해 대전시 관광역 유치에도 크게



11일 중구 청사 중회의실에서 행정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구 제공)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동 뿌리공원 인근 행정근린공원 등 15만 5833㎡부지에 제2뿌리공원 조성을 골자로 한 효문화뿌리마을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오는 7월 용역이 끝나 사업 설계가 완성되면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 교통·환경·재해·문화재 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연말까지 마치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방침이다.

박용갑 구청장은 "공간적 한계에 부딪힌 뿌리공원의 공간 확대와 기능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제2뿌리공원 조성 사업이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관광개발 거점사업 선정부터 올해 설계감리비 7억 5000만 원의 국비 확보까지 지난 4년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이번 용역과 이후 행정절차를 원활히 진행해 관광도시 대전을 대표하는 새로운 명소로, 중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람** 기자 e-gjacc@dailycy.net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충남일보 (19.5.9.)

大田日報
2019년 5월 9일 목요일 007
면 종합
대전 중구 횡단보도 신호연장

대전 중구는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돕기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늘렸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보폭인 1초, 1m에 맞춰져 있다.

이로 인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 신호가 바뀌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역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양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7곳의 보행 신호시간을 3~5초 늘렸다. 보행 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유천네거리 양쪽, 호암컨벤션 양쪽, 은행단일로, 성모오거리, 돌다리네거리 교차로 등이다. 박용갑 청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中都日報
2019년 5월 9일 목요일 005
면 종합
중구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대전 중구가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위해 지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중구는 유천네거리 등 횡단보도 7곳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돼 있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월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전수조사를 펼쳐 ▲유천네거리 양쪽 ▲호암컨벤션 양쪽 ▲은행 단일로 ▲성모오거리 ▲돌다리네거리 교차로 등 7곳에 대한 보행신호 시간을 3~5초 정도 연장했다. **김성현 기자**

충청투데이
2019-05-08 19:43
중구, 전수조사 결과 7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3~5초 연장

[이정훈 기자]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중구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돼 있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되며, 이는 교통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월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양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7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 보행 신호시간이 3~5초정도 늘어났다.

이번에 보행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유천네거리 양쪽 ▲호암컨벤션 양쪽 ▲은행 단일로 ▲성모오거리 ▲돌다리네거리 교차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늘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니게 돼 다행이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도 높아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style@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일보
2019년 5월 9일 목요일 006면 대전
"어르신도 이제 횡단보도 편하게"

중구 전수조사 결과 7개 보행신호 '3~5초' 연장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하지만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며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되며,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월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양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7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 보행 신호시간이 3~5초정도 늘어났다. 이번에 보행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유천네거리 양쪽 ▲호암컨벤션 양쪽 ▲은행 단일로 ▲성모오거리 ▲돌다리네거리 교차로다.

박용갑 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늘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니게 되어 다행이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도 높아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지양 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효! 독서체험관 운영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금강일보, 중도일보, 충청신문, 중앙매일, 대전투데이 ('19.5.22.)

금강일보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019면 금강마당

'인기만점' 중구 효 독서체험관

2개월여간 1500여 명 다녀가 효 인형극 등 프로그램 호응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1층에 새로 문을 연 효 독서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개관 이후 지난 20일 기준 1500여 명이 다녀갔다. 2000여 권의 효 동화책을 편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효 독서체험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로 효 동화를 듣고, 효 영상 감상과 함께 효 열쇠고리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관객이 많아도 관리의 일 관의 대표 아경 병소로 손꼽히는 뿌리공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성씨 유래가 적힌 244개의 성씨조형물과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족보박물관이 있는 뿌리공원은 평일 하루 3000여 명, 주말 7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박용길 청장은 "효를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효열드에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dragon@gjilbo.com

中叻日報 2019-05-21 16:41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독서체험관' 인기

[임효인 기자]

3월 5일 개관 후 1500여명 방문



효문화마을 독서체험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고 있다. 대전 중구 제공대전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효 독서체험관이 인기를 얻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5일 개관 후 이달 20일까지 1500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2000여 권의 효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독서체험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로 효 동화를 듣고 효 영상 감상과 함께 효 열쇠고리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독서체험관은 주 이용자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을 보강 등으로 입소문을 타고 지난달부터 타 지역 방문객이 늘어났다.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오는 단체객이,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는 노인 돼 보기, 효 인형극 관람 등 체험 프로그램을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박용길 중구청장은 "효를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효열드에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忠淸新聞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005면 지역

책으로 즐겁게 배우는 효 '인기 만점'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효 독서체험관' 개관 후 1500여명 발걸음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 1층에 새로이 문을 연 효 독서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5일 개관 이후 이달 20일까지 1500여 명이 다녀갔다. 2000여 권의 효 동화책을 편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독서체험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로 효 동화를 듣고, 효 영상 감상과 함께 효 열쇠고리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관객이 많아도 관리의 일 관의 대표 아경 병소로 손꼽히는 뿌리공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성씨 유래가 적힌 244개의 성씨조형물과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족보박물관이 있는 뿌리공원은 평일 하루 3000여 명, 주말 7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박용길 청장은 "효를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효열드에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e-gjccn@nhanj.com

대전투데이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004면 대전

중구 효 독서체험관 인기만점

개관후 1500여명 대거... 지난달부터 타 지역방문 늘어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길)가 효문화마을관리원 1층에 새로이 문을 연 효 독서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5일 개관후 이달 20일까지만 1500여명이 다녀갔다. 2천여권의 효 동화책을 편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독서체험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로 효 동화를 듣고, 효 영상 감상과 함께 효 열쇠고리도 만들어 가져갈 수도 있다.

체험비는 무료다.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오는 단체객이,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의와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후 주 이용자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시설을 보강과 독서체험관의 고유한 특성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타 지역에서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는 노인돼보기, 효 인형극 관람 등 체험프로그램을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다. 관리원 열 대전의 대표 아경 병소로 손꼽히는 뿌리공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성씨 유래가 적힌 244개의 성씨조형물과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족보박물관이 있는 뿌리공원은 평일 하루 3천여명, 주말 7천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박용길 청장은 "효를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효열드에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중앙매일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004면 종합

대전중구, '인기만점, 효 독서체험관'

책으로 즐겁게 효 배우는 효문화마을관리원 독서체험관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길)가 효문화마을관리원 1층에 새로이 문을 연 효 독서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3월 5일 개관후 이달 20일까지 1500여명이 다녀갔다. 2천여권의 효 동화책을 편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독서체험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목소리로 효 동화를 듣고, 효 영상 감상과 함께 효 열쇠고리도 만들어 가져갈 수도 있다.

체험비는 무료다. 평일 오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오는 단체객이, 평일 오후와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의와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이후 주 이용자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시설을 보강과 독서체험관의 고유한 특성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난달부터 타 지역에서의 방문이 크게 늘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는 노인돼보기, 효 인형극 관람 등 체험프로그램을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다. 관리원 열 대전의 대표 아경 병소로 손꼽히는 뿌리공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성씨 유래가 적힌 244개의 성씨조형물과 족보를 비롯한 전통문화와 가족생활사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족보박물관이 있는 뿌리공원은 평일 하루 3000여명, 주말 7000여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박용길 청장은 "효를 즐겁게 배우고 익히고,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뿌리공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는 효열드에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충청신문, 중앙매일, 금강일보 (19.5.8)

忠清新聞

2019년 5월 8일 수요일 005면 지역

여성친화도시 주민설명회 중구, 말일까지 17개동 순회

대전 중구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중구 전체 17개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만나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를 돕고 민·관 협력을 다진다.

설명회는 사례중심의 여성친화도시 개념설명, 민·관 협력체계 당부 등으로 꾸려진다. 동 순회를 마친 후엔 주민모임, 기관·단체 등 주민이 모이는 곳을 찾아 여성친화도시 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여성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 ▲경력단절 여성 취업교육 등 여성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 안전한 도시환경 등을 제공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람 기자 e-gijacc@dailycc.net

중앙매일

2019년 5월 8일 수요일 004면 종합

중구,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행정복지센터 순회, 여성친화도시 주민공감대 형성 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31일까지 중구 전체 17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만나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를 돕고 민·관 협력을 다진다.

설명회는 사례중심의 여성친화도시 개념설명 민·관 협력체계 당부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동 순회를 마친 후엔 주민모임, 기관·단체 등 주민이 모이는 곳을 찾아 여성친화도시 설명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다.

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여성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등 여성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 안전한 도시환경 등을 제공하며 양성평등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완 기자

금강일보

2019-05-07 18:03

중구,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설명회

[김정섭 기자]

대전 중구는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구는 7일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31까지 구 전체 17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을 만나 여성친화도시의 이해를 돕고 민·관 협력을 다진다.

이번 설명회는 사례중심의 여성친화도시 개념설명, 민·관 협력체계 당부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동 순회를 마친 후 주민모임, 기관·단체 등 주민이 모이는 곳을 찾아 여성친화도시 설명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여성을 위한 무인택배함 설치,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더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 안전한 도시환경 등을 제공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섭 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조성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도일보 (19.6.23)

中 韓 日 報

2019-06-23 10:17

대전 중구-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 취업교육 지원 사업 협약 체결

김효연 기자

해방기 중 경력수입전문가 등 5개 과정 운영 예정



지난 23일 중구 구민사랑방에서 열린 '여성 취업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박홍길** 중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강은혜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등 두 기관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전 중구 제공대전 중구는 지난 23일 중구 구민사랑방에서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와 취업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에 단절된 여성의 취업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교육과 취업을 함께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중구는 올해 하반기 중 경력수입전문가, 베이비시터, 산모물놀이 양성 3개 과정을 대전YWCA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운영한다. 중구엔 대상이해,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안은 여성가족과(994-442)로 하면 된다.

박홍길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여성의 취업 길이 더욱 활짝 열려지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 도시민천과 보다 나은 복지환경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연 기자

깨끗한 중구만들기 / 우리동네 클린사업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디트니스 24 (19.6.17.)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 환경정비 봉사

이영지 | 승인 2019.06.17 18:08 | 댓글 0



17일 다들 크리를 청소한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원들

대전 중구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는 17일 자원봉사협의회원과 함께 다들 크리에 나섰다. 이날 봉사자들은 물통을 들고서 쓰레기와 잡초공청소를 하고, 분리가 잘 된 용기를 차광용 쓰레기를 정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한 복지관 관계자는 "우리 다들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치우고, 주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협의회원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우리동네 클린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중구 환경개선 사업이다. 유천2동 자원봉사협의회는 클린사업 시작과 함께 매일 1명씩 다들 크리를 꾸준히 하운다.

깨끗한 중구 만들기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 확대

※ 주요 언론 보도 내용 - 중앙매일, 금강일보,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신문, 대전투데이 (19.5.13.)

중앙매일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004면 종합

음식물쓰레기감량 위한 RFID 종량기 설치 확대

중구, 올해까지 89대 설치...음식물쓰레기 40%감량 효과 보여

대전 중구(박용갑 구청장)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중인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RFID 종량기는 가구별 배출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여준다.

구는 지난 2016년 종량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5개 공동주택에 49대를 확대 설치했다.

올해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선화동

센트럴뷰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총 40대의 RFID종량기를 6월까지 추가 설치한다.

이번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총 89대의 종량기가 생겨나게 된다.

설치 전과 비교해 매월 40%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갑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RFID종량기 설치에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원 기자

금강일보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006면 사회

중구 'RFID 음식물 종량기' 확대

대전 중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 중인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확대한다.

구는 2016년 종량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5개 공동주택에 49대를 설치했고 올해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화동 센트럴뷰 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40대의 RFID종량기를 내달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RFID종량기는 가구별 배출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 만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모두 89대의 종량기가 가동돼 매월 40%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大田日報 2019-05-13 14:14

대전 중구,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효과 특목

[김용인 기자]



대전 중구 금호어울림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사진=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시행중인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RFID 종량기는 가구별 배출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한다. 구는 2016년 종량기를 설치하고 지난해에는 5개 공동주택에 49대를 확대했다. 올해는 예산 8000만 원을 들여 선화동 센트럴뷰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40대의 종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구는 종량기 설치로 중대 40%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용갑 구청장은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忠淸新聞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005면 지역

중구, 음식물쓰레기 절감 무선인식 종량기 효과 '독특'

대전 중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중인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RFID 종량기는 가구별 배출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여준다.

구는 지난 2016년 종량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5개 공동주택에 49대를 확대 설치했다.

올해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화동 센트럴뷰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총 40대의 RFID종량기를 내달까지 추가 설치한다. 이번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총 89대의 종량기가 생겨나게 된다. 설치 전과 비교해 매월 40%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RFID종량기 설치에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람 기자 e-gijacc@dailycc.net

中韓日報 2019-05-13 17:55

대전 중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RFID 종량기' 설치 확대

[임효인 기자]

올해까지 89대 설치... 음식물쓰레기 40%감량 효과



금호어울림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 금호어울림아파트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대전 중구 제공

대전 중구(박용갑 구청장)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 중인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절감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추가 보급에 나선다.

RFID 종량기는 가구별 배출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40%가량 줄여 준다. 구는 지난 2016년 종량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5개 공동주택에 49대를 확대 설치했다. 올해도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선화동 센트럴뷰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총 40대의 RFID 종량기를 6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총 89대가 된다.

박용갑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RFID 종량기 설치에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대전투데이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004면 대전

중구 음식물쓰레기 감량 RFID 종량기 설치 확대

올해까지 89대 설치, 음식물쓰레기 40%감량 효과 보여

대전 중구(박용갑 구청장)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시행중인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RFID 종량기는 가구별 배출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여준다.

구는 지난 2016년 종량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5개 공동주택에 49대를 확대 설치했다.

올해도 8천만원의 예산으로 선화동 센트럴뷰아파트 등 6개 공동주택에 총 40대의 RFID종량기를 6월까지 추가 설치한다.

이번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총 89대의 종량기가 생겨나게 된다. 설치 전과 비교해 매월 40%이상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용갑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RFID종량기 설치에 더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해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